

유럽, 인텔리전트 빌딩그룹 창설

최근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영국에서는 유럽 인텔리전트 빌딩그룹(EIBG)을 창설, 인텔리전트 빌딩 설계와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IBG는 인텔리전트 빌딩의 계획, 설계, 건축, 운영에 관련된 모든 기업그룹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유럽에서 처음으로 창설된 기관이다. 그 회원 가운데는 컨설턴트, 건축가, 연구단체, 생산업자, 공급업자, 정부, 출자기관, 건물주, 입주자 등이 들어있다.

유럽 인텔리전트 빌딩그룹은 사용자로서의 런던 Lloyd사에서 파리에 있는한 인텔리전트 빌딩 컨설턴트 회사에 이르는 정회원을 포섭하기 위해 처음 영국 회사에서 발전한 것이다.

EIBG의 창설멤버는 유럽 6개국과 미국, 캐나다, 일본의 대표들인데 그 가운데는 영국에서 6천개의 건물에 들어 있는 영국 전기통신주식회사도 포함되어 있다.

덴마크와 그밖의 유럽 국가들은 Digital Equipment Corporation과 Legrand와 같은 다국적 회사들이 준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회원들은 동등하게 취급되며 이 그룹이 만들어 내는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권리를 갖는다.

EIBG는 국가와 기관, 시장과 학술 및 연구분야, 상호간의 정보 흐름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고 있다.

세미나를 개최하여 모든 부문의 대표들이 서로 직접 접촉할 수 있게 하고 그룹의 활동은 연구계획을 더욱 촉진시켜 공급자와 학계 사이의 협동관계를 창출하고 실업계와 학계 사이에



교역할을 해준다.

이 상호교환작용, 곧 교류의 한 예로 건물지능의 정도를 발견하고 '90년대의 사례와 주역(主役)을 재조명하며 장차 그러한 건물이 취하게 될 형태를 검토하고 시장에서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는 유럽 인텔리전트 빌딩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의 넓은 범위로 해서 EIBG의 여러 다른 회원들이 참여하여 갖가지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EIBG는 전기산업의 재정지원을 받는 일종의 압력단체라는, 성질은 매우 다르지만 미국의 IBG와도 연계를 가지고 있고 4만명의 회원을 가진 미국 국제 편의시설 관리협회와도 세미나 계획을 포함, 여러가지로 접촉하고 있다.

EIBG는 온 유럽을 통해 인텔리전트 빌딩의 개념에 대한 연구와 토론의 불편부당한 핵심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그것은 EIBG 회원은 물론 인텔리전트 빌딩 입주자 전반의 이익을 위한 아이디어와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는 전 세계 그룹망의 실현을 향한 매우 뜻깊은 첫걸음이다.